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12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1.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함께
----------------	------------------------	-----

♠ 공동기도	다함께
--------------	-----

고마우신 주님, 연일 하늘을 가린 먹구름 사이로 은혜의 햇살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많은 일들과 복잡한 관계로 뒤엎힌다고 해도 주님의 은혜는 그 곳에도 미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기도의 손을 모으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주님 주신 힘으로 늘 올곧은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남들이 몰라준다 푸념치 말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겸손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연의 섭리자이신 주님, 이 땅의 기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름철 한 때의 장마는 긴 우기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처서에 비가 오면 쌀독의 곡식도 줄어든다는데 흉년이 들까 걱정입니다. 이 환경의 변화가 우리들의 탐욕과 무지함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덜 소유하고 덜 소비하는 삶이 함께 살아가는 길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롬8:33-34	인도자
----------------	----------------	-----

♠ 교 독 문	21. 시편95편	다함께
---------------	-----------------	-----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	----------------------	-----

대표기도	I. 장성호 선생	II. 한상의 장로
------------	-----------	------------

응 답 송	찬양대
-------------	-----

찬 송	492.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함께
-----------	-----------------------	-----

성경봉독	I. 마5:1-16	인도자
------------	------------------	-----

II. 창33:12-20	이동천 집사
---------------------	--------

찬 양	찬양대
-----------	-----

말 씬	I. 바로잡기	김재흥 목사
-----------	---------------	--------

II. 엘엘로헤이스라엘	김기석 목사
--------------------	--------

거듭기도	다함께
------------	-----

헌신의 찬송 344.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 다함께

헌금봉헌 연주 : 홍지희 다함께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
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날 때
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굳게 믿으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
리의 하나님 됨을 잊지 마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연약하고 이기적인 자신만 들여다보며 살지 않겠습
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을
뛰어 넘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살아가라 명하신 이들을 배
려하며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 되어
늘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앙강좌	성서로 배우는 평화
강사 : 정수복 교우	기도 : 이명희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김기석 목사	김서현 선생 장영숙 전도사	인도자 백혜숙 권사

8월	영접위원	조병무	김용진	권혁순	박효선	이형숙	박혜경
	헌금위원	김철수	이호원	박창운	배삼순	박효선	정영선

자발적인 순종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험을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충분히 강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 경험에 개방하면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잡도록 도와주는 그 무엇을 우리는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낱짜를 정해 놓으면 치과의사에게 기꺼이 찾아가지만 자기 자신이 낱짜를 정할 수 없는 소년을 본 일이 있습니까? 진통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려던 남편이, 아내가 낱짜를 잡아 놓으면 불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주 유익한 휴가를 가져야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면 점차로 휴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순종’ 하에서만 좋은 일—필요한 일마저도—행합니다.

영신 생활에도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혹은 이행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훌륭한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사실이 우리의 것이 된다면 아마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런 자질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질이 우리 자신에게 성취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결정을 우리가 자유로이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누군가가 우리를 강요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내릴 수 없는 결정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명령에 우리 자신을 자유로이 맡기고, 다른 사람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체험을 겪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올리브 동산에서 뼈아픈 고통을 당하시던 순간에 그분 안에서 아주 분명히 나타난 것이 이런 순종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이런 점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택한 선택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눅22:42). 그리스도는 이 고난을 겪는 것이 훌륭한 일임을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이런 결

정을 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이 그분에게는 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의 고통과 싸우면서도 굽히지 않고 더욱 열렬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땀방울 같은 땀이 뚝뚝 흘러 땅에 떨어졌습니다”(눅22:44). 그와 같은 체험을 겪기 위하여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그리스도가 순종한 것은 그분에게 강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큰 차이는, 당신 아버지의 뜻에 그리스도가 순종한 것은 사랑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께 순종하는 이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것처럼 무서워하였던 구원적 체험을 끝까지 겪을 수 있었습니다. 이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영신 생활에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온순하며, 자비롭고, 마음이 깨끗하며, 옳은 일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려면, 영신 생활의 이런 분위기를, 우리를 인도하는 다른 사람의 결정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퀸틴 하켄위스, <<주여, 나를 약하게 하소서>> 중에서

저마다의 불빛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습관에 빠져들기는 너무도 쉽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랜 시간 동안, 실재없이, 특별한 보상도 없이 열심히 해주기만을 기대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시간을 내어주는 것에 대해 마냥 관대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지치고 피로하고 탈진했을 때조차도 계속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 한다면 속으로는 분노와 혐오감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태도를 바꾸었을 때 혹 실패자로 인식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만약 실패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실패를 책임질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마다의 불빛을 따라, 저마다의 속도로, 저마다의 개성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태니스라우스 케네디, <<영혼의 정원>> 중에서

■ 마/음/으/로/위/는/글

오 리

오리가 쭈시고 다니는 호수를 보고 있었지.
오리는 몽특한 부리로 호수를 쭈시고 있었지.
호수의 몸속 건더기를 집어삼키고 있었지.
나는 당신 마음을 쭈시고 있었지.
나는 당신 마음 위에 떠 있었지.
꼬리를 흔들며 갈퀴손으로
당신 마음을 긁어내고 있었지.
당신 마음이 너무 깊고 넓게 퍼져
나는 가보지 않는 데 더 많고
내 눈을 어두워 보지 못했지.
나는 마음 밖으로 나와 불일을 보고
꼬리를 흔들며 뒤뚱거리며
당신 마음 위에 뜨곤 했었지.
나는 당신 마음 위에서 자지 못하고
수많은 갈대 사이에 있었지.
갈대가 흔들리는 칼을 보았지.
칼이 꺾이는 걸 보았지.
내 날개는
당신을 떠나는 데만 사용되었지.

--이윤학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철수 유영민 권호천 배상순 김용길 최영혜 백승민 유명수 박애순
 박장운 허정윤 박홍엽 신윤정 윤미경 이봉욱 이광용 현인수 홍복선
 권미숙

월정헌금:

고속이 권수원 윤정화 김미순 김정애 권미숙 배부례 박어진 송의섭
 송임희 윤주원 최윤선 이갑재 이민범 이정은 전영자 하현철 최성애
 황경순 문홍일

감사헌금:

안정숙 혜경순 배근수 김금순 송허준 동준원 김필수 경영선 정수복 김정애
 박옥식 이정복 오은정 윤경조 김창운 송허성 송준원 김인인 정문복 김희우 임창선
 김지혜 오현정 조유경 조유기 이성운 김필수 김기성 김희우 임창선
 무명2

캄보디아 우물헌금: 윤미경 윤수진 생일감사헌금: 윤정덕 배부례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미래흥부외과 한상익 정영선 (누계: 89,020,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장혜숙	장혜숙	침	침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갈릴리	안정숙	박애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신앙강좌** : 오늘 오후 집회는 제4회 신앙강좌로 모입니다. 정수복 교우께서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2. **영남선교대회** : 부산경남 지역의 선교를 위해 마련한 감리교회 영남선교대회가 23일(목) 부산에서 열립니다.
3. **태양광발전소** : 교회 지붕에 세우는 발전소 시공이 9월초로 다가왔습니다. 백주년 기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4. **동호회** : 다음 주일 오후에 실시합니다.
5. **신앙실천** : 8월 22일은 '에너지의 날'입니다. 이미 나누어드린 바 있는 녹색생활지침을 잘 활용하십시오(CO₂ 감축, 지구 온도 1.5도 낮추기).

* 식당 봉사 : 갈라디아 속

토요봉사(25일) : 김필순, 조병주

* 캄보디아 우물 기부 신청자 : 장재영 김재영 (장주연 생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